

적응 마친 프리드온슨 ‘득점 폭격기’로 뛴다



광주FC가 ‘아이슬란드 폭격기’ 프리드온슨과 재계약을 했다. 지난 8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광주로 온 프리드온슨은 올 시즌 9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다. 전북과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동점골도 장식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와 재계약… 지난 8월 K리그 데뷔 후 ‘알짜 활약’
압도적 피지컬·헤더 강자… 2026시즌 득점 기대감 높여



‘아이슬란드 폭격기’ 프리드온슨(32)이 2026시즌에도 광주FC 공격을 책임진다. 광주FC는 17일 ‘아이슬란드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프리드온슨과 계약을 연장하고 내년 시즌에도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드온슨은 아이슬란드 출신 첫 K리거다. 지난 8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광주와 인연을 맺은 그는 아이슬란드 구단 HK 코파보구르를 통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 유니폼을 입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 리그에서 활약한 뒤 K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프리드온슨은 196cm·85kg의 압도적인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공중볼 싸움에 강하고, 강력한 헤더 실력도 보유하고 있다. 원발잡인인 그는 오른발 사용도 능숙하며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인다. 연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타겟형 공격수다.

8월 10일 포항스틸러스전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K리그 데뷔전을 치른 그는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했다. 2골 모두 특별했다.

프리드온슨의 첫 골은 11월 2일 제주SK와의 35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왔다.

1-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조성권의 땅볼 크로스를 받은 프리드온슨이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에 끼기장을 박았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K리그 1 진류를 확정했다.

홈폐막전에서도 프리드온슨이 환호했다.

프리드온슨은 11월 22일 울산HD와의 37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분 만에 골을 신고했다. 안현주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대를 갈랐고, 광주는 후반 29분 나온 최경록의 골을 더해 홈폐막전을 2-0 승리로 장식했다.

프리드온슨은 지난 6일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 프리드온슨은 0-1로 뒤진 후반 25분, 헤이스가 머리로 떨군 공을 헤더로 연결해 골대를 갈랐다.

광주는 프리드온슨의 천금 같은 골로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지만 아쉽게 1-2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프리드온슨은 낙점했던 이정효 감독은 그의 실력 만큼이나 인간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홈폐막전 승리 뒤 이정효 감독은 “프리드온슨은 좋은 사람이다. 선수 이전에 좋은 사람인가 때문에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K리그 적응을 끝낸 프리드온슨은 막판 기세를 이어 내년 시즌 광주의 공격 핵심으로 역할을 할 전

망이다.

프리드온슨은 “광주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받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 많은 득점을 목표로 해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FC의 ‘브라질 특급’ 에드가도 이날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2018년 여름 대구 유니폼을 입은 그는 팀을 상징하는 공격수로 역할을 이어왔다. 대구에서만 8시즌을 뛰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 1골을 포함해 K리그 통산 192경기에 출전해 56골 2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대구가 K리그1 죄하위에 그치면서 10년 만에 강등 운명을 맞았지만, 에드가는 변함 없이 내년 시즌에도 팀을 지키면서 ‘승격 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북중미 월드컵 ‘고지대’ 변수… 손흥민도 시험대

고지대 체력전 부담 가중 현실
공 궤적 변화 변수 확대 직면에
사전 적응훈련이 승패 가를 듯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고지대 적응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2025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포함된 한국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른다.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변수는 고지대 적응이다.

고지대에서는 공기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훨씬 쉽게 지치고, 공기 저항이 달라 공의 궤적에도 변화가 생기므로 사전 적응 훈련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시간으로 내년 6월 12일 과달라하라 아크로스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1차전을 치르고, 일주일 후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와 격돌한다.

6월 25일엔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최종전을 벌인다.

해발 500m 정도인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3차전과 달리 문제는 1, 2차전이다.

유럽 PO 패스D 승자, 그리고 멕시코와의 맞대결은 모두 해발 1571m의 고지대에 위치한 과달라하라 아크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대관령(해발 약 830m)의 약 두 배 높이이며, 태백산(1567m)과 거의 비슷하고, 설악산 대청봉(1708m)보다는 약간 낮다.

우선 고지대는 공의 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 밀도가 낮아 공에 가해지는 저항이 줄어들면서 패스와 슈팅이 평지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고, 이에 따라 선수들은 힘 조절과 정확도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공의 회전에 의한 휘는 힘도 줄어들어 감아 차기나 커브 슈팅과 같은 기술에도 변수가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는 체력 부담도 따른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손흥민이 공을 잡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낮아 선수들의 호흡과 심박수가 평지보다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에도 체력 소모가 커지고 스프린트와 압박 같은 강도 높은 플레이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조 추첨을 마치고 멕시코에서 베이스캠프 후보지 여덟군데를 답사하고 온 축구 대표팀 흥명

보 감독도 고지대 적응을 핵심 요소로 꼽았다.

그는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해발 1500m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라며 “마음에 드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K리그 2026 시즌 캐치프레이즈 공모

31일까지… 내년 1월 팬 투표

K리그 팬들이 직접 공식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시즌 K리그 공식 캐치프레이즈 선정을 위한 팬 참여 공모전을 연다.

캐치프레이즈는 ▲경기를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리그의 가치 ▲K리그가 팬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 글자 수는 제한이 없으며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다.

공모는 오는 31일까지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수상작은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8개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가려진다. 2차 심사는 팬

(30%), 구단 관계자(30%), 전문가(40%)의 점수를 합산해 이뤄진다.

팬 투표는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내년 1월 중 수상작이 발표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아디다스 팀 K리그 사인 유니폼 1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제품 및 K리그 공인구, 장려상 및 참가상 수상자에게는 부루마블 K리그 에디션, 도블 K리그, K리그 공인구 등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작은 2026시즌 K리그 공식 인트로 영상, K리그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K리그 경기장 배너 및 옥외 홍보물, K리그 관련 MD 및 각종 캠페인 소재 등으로 활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SG 템벨레, FIFA ‘올해의 선수’

유럽챔스 등 4관왕… 세계 스타들 투표서도 1위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이강인과 한슬방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템벨레(프랑스·시진)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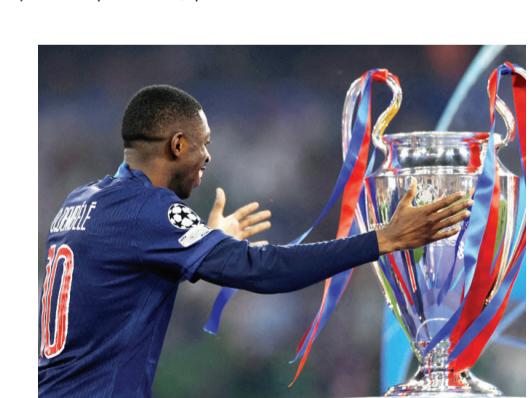
템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풀블 어워즈에서 키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프랑스), 라민 아랄(FC바르셀로나·스페인)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템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해 수상자를 정했다.

이 기간 템벨레는 PSG가 창단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일군 것을 포함해 4개의 트로피(리그1, 프랑스컵, 트로페 데 상피옹)를 들어 올리는 데에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공식전 53경기에 출전해 35골 16도



움을 올렸다. 특히 UCL에서만 8골을 책임졌다.

올해의 선수 선정은 FIFA 가맹 221개국 감독과 주장, 기자단, 팬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각국 주장 투표 결과를 보면 손흥민(LAFC)은 1순위로 템벨레를 꼽았고 2순위로 ‘절친’ 해리 케인(뮌헨)을 지목했다. 3순위는 야말이었다. 흥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선택 역시 1순위는 템벨레였고, 2순위엔 야말, 3순위엔 비티나(PSG·포르투갈)의 이름을 넣었다.

연합뉴스